

보도시점 (인터넷)
(지 면)수신 즉시
2024.8.7.(수) 조간

배 포

2024.8.6.(화) 08:00

제과점업, 대·중기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 대기업 제과점 총량제한 5%, 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완화
- 11년 간 전체 제과점 수 및 매출액 2배 증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6일(화)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등이 참석하여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과점업 상생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 2024. 8. 7. ~ 2029. 8. 6. (5년 연장)
- 협약대상 : (사)대한제과협회, (주)더본코리아, (주)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주), (주)이랜드이츠, (주)파리크라상, 동반성장위원회
- 주요 협약내용
 -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기존2% → 변경5%) 이내 범위에서 신설 허용
 -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 준수 (수도권 기존500m → 변경400m, 그 외 지역 500m)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13~'19)에 이어 '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 : ('12) 13,577개 → ('19) 21,470개 → ('22) 28,070개 (206%↑)
- *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수 : ('12) 10,198개 → ('19) 15,822개 → ('22) 22,216개 (217%↑)
- * 제과점업 전체 매출액(백만원) : ('12) 3,612,611 → ('19) 5,977,512 → ('22) 7,570,524 (209%↑)
- *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백만원) : ('12) 1,493,659 → ('19) 2,051,352 → ('22) 3,212,146 (214%↑)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 뚜레쥬르 해외매장 수 : ('12) 66개 → ('23) 443개 (6.7배 ↑)

* 파리바게뜨 해외매장 수 : ('12) 137개 → ('23) 544개 (3.9배 ↑)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하였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의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응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떡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붙임> 1.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개요
2. 제과점업 상생협약 참고사항

담당 부서	상생협력지원부	담당자	부 장	제갈현실 (02-368-8715)
배포 부서	홍보팀		팀 장	이 전 (010-2064-7651)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1 Strike Out!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붙임 1**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개요**

- 일시 : '24. 8. 6. (화), 13:50 ~ 14:30
- 장소 :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 참석 대상 : 제과점업 중기단체, 대기업 등 협약 대상자 30인 내외
 -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실무자 등 10명 내외
 - (중기단체)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 5명 내외
 - (대기업)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및 실무자 15인 내외
- 행사일정(안)

※ 총 40분(사전환담 포함)

시 간	내 용	비 고
13:50~14: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담 * 동반성장위원장 및 중기단체장, 협약 대기업 대표 등 	
14:00~14:0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동반위 제갈현실 부장
14:05~14: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씀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마옥천 제과협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14:20~14:2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약 내용 소개 	동반위 제갈현실 부장
14:23~14:3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서명 	협약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촬영 및 폐회 	전체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과점업 상생협약 참고사항

- (추진경과) 적합업종 권고 만료 후 상생협약 체결·연장
 - * 적합업종('13.3~'19.2) → 상생협약('19.8~'24.8) → 상생협약 연장('24.8~'29.8)
- (협약참여 대상)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참여
 - 최초 협약 당시 9개 대기업에서 현재 5개 대기업으로 변경

1차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19~'24)	2차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24~'25)
대기업(9개사) :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대기업(5개사) : 신규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 기존 협약 대기업 제외 사유
 - 대우산업개발(브리오슈도레) : 전 지점 폐점 사업 철수('23.12)
 - 롯데제과(보네스빠) : 가맹 사업철수('20.4)
 -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몽상클레르) : 자사 내 1개점 제외 전체 로드샵 철수('23.12)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릭케제르) : 전 지점 폐점 사업 철수('19.10)
 - 홈플러스 홀딩스(몽블랑제) : 로드샵 없이 마트 매장 내 인스토어 형태로만 운영